

“일상 속 불편한 이야기 문화예술로 풀어냈어요”

20대 창작그룹 ‘MOIZE’ 30일부터 광주여성재단 ‘불효녀클럽’ 5월 주제 오디오 시어터·책 등 제작

여성들을 구속해온 ‘효’에 대한 전시를 진행하고, 지방 청년의 욕망을 영화로 얘기하고 5·18 사적지를 연극과 책으로 소개하고, 방직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체조로 만들고...

‘왜 광주에서는 예술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광주만의 한 창작그룹이 다양한 활동으로 광주 예술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창작그룹 ‘MOIZE(이하 모이즈)’는 문단은, 양채은, 도민주로 이뤄진 단체다. 이들은 연극동아리에서 만나 활동하던 중 ‘하고 싶은 얘기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생각을 모아 2018년 모이즈를 창단했다.

이들은 하나의 주제와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갖고 있는 생각을 전시와 연극 등을 통해 분출한다.

모이즈는 이달 30일부터 2023년 2월 22일까지 광주여성재단 여성전시관에서 열리는 ‘허스토리 기획전시’ 일환으로 ‘불효녀클럽’을 선보인다. 작품은 유교문화권의 정서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오늘날 과거에 비해 가장 인권의 변화가 큰 여성들의 ‘불효’의 양상에 집중한다. 모이즈는 연구원이 되고 관객들은 불효녀클럽 연구실에 방문해 불효녀에 대한 인터뷰, 연구 결과 등을 살펴보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불효녀’의 형태가 이 시대의 삶의 가치와 윤리의식, 가족관계 및 형태에 어떤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지 물음표를 던진다.

앞서 이들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제13회 광주여성영화제’에서도 ‘지방 청년’의 이야기를 담아 출품한 바 있다.

모이즈의 리더 도민주씨는 올해 6월 원작 3시간 분량의 ‘상상서울’ 작품을 제작했고 이번 영화제에서는



서울 남산예술극장에서 열린 ‘미래기념비탐사대’ 공연 당시 모습.

(모이즈 제공)

37분 가량으로 재편집해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작품은 ‘지방 청년’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상상서울을 노래한다. 광주의 청년들이 상상 속의 서울로 떠나는 내용으로, 여행을 통해 서울에 과잉 투영된 자신의 욕망과 미래를 발견한다.

모이즈는 또 지난달 5·18 사적지가 음성으로 말을 거는 오디오 시어터 공연 ‘콘크리트 보이스’를 창·제작해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해당 프로젝트는 5·18 기념재단과 의 협업작으로 참가자들이 전일빌딩 245층상과 금남로, 총장로 일대를 걸으며 콘크리트 음성을 듣고 5·18 사적지의 가치를 체험하는 방식이다.

또 광주 오월과 관련,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장소특정형 전시를 진행했고 이후 ‘미래기념비탐사대’라는 청년들의 5·18 이야기 담긴 다큐멘터리 연극과 책을 만들었다.

지난달 25일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광주의 방직공장에서 살아남 여성들의 삶이 잊혀지지 않도록 소금꽃 구슬자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여성들이 공장생활을 통해 체득한 노동의 기억을 체조로 구현해내기도 했다. 총 5분 분량의 체조는 4개 섹션, 16개 동작으로 구성됐다. 잠에서 깬 노동자들이 기지개를 펴는 것으로 시작해 공장에서 섬유를 풀어내는 작업과 실 만들기, 직조가 잘못된 곳을 찾는 과정을 몸으로 그려냈다.

앞으로도 모이즈는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불편한 이야기들, 고개가 기울어지는 생각들을 얘기할 계획이다. 다만, 모이즈는 그들이 언제나 공연의 형태는 아닐거라 얘기한다. 정형화된 형식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이 모이즈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노의웅 작
‘구름 천사’

자신만의 이야기 ‘마음의 산책’

청동희 정기 회원전, 25일까지 자미갤러리

‘마음 속 풍경을 풀어놓다.’

‘청동희’는 지난 1980년 창립한 유서 깊은 미술 그룹이다. 모임을 꾸린 이후부터 매년 정기회원전을 개최했으며 대구 ‘심상회’, 부산 ‘형맥회’ 등과 교류전도 진행했다. 청동희는 매일 화구를 챙겨 들고 자연을 배운다는 마음으로 야외스케치를 진행해왔다. 또 중국, 태국, 필리핀 등으로 해외 스케치를 떠나기도 했다.

청동희 41번째 정기 회원전이 오는 25일까지 광주시 북구 자미갤러리에서 열린다.

‘마음의 산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회원들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는 고문을 받고 있는 노의웅 화백을 비롯해 김광래·박규남·안태영·윤희

경·이금주·이치선·정소영·조하나·주성범·천기정·최용석 등 20명의 작가가 작품을 출품했다.

노의웅 화백은 대표작 ‘구름천사’ 시리즈를 선보이며 류미숙 작가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작품을 전시했다. 송지운 작가는 사회 구성원들의 모습을 자연에 빗댄 ‘풀밭에’ 연작을, 유미란 작가는 흐드러지게 핀 꽃송이가 인상적인 ‘오색달빛향기’를 전시한다.

그밖에 장연희 작가는 현대인들에게 위안을 주는 유토피아를 포착한 ‘Dream’, 전현자 작가는 꽃향기에도 우주적인 사랑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꽃피우다’를 선보인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자은도에 흐르는 클래식 향기 신안군 ‘피아노섬 프로젝트’... 내년 5월 페스티벌

내년 ‘피아노섬 페스티벌’이 열리는 신안군 자은도. (신안군 제공)

‘전사섬’ 신안(군수 박우량)은 하나의 섬에 하나의 뮤지엄을 건립하는 ‘1도(島) 1뮤지엄’ 아트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 자은도는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가 설계한 ‘인피니토 뮤지엄’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어 눈길을 끈다.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강남교보빌딩, 리움미술관 등을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은선 조각가와 함께 ‘인피니토 뮤지엄’을 준비중이다.

자은도는 무한의 다리와 둔장해변, 뮤지엄파크, 백길·분계해수욕장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함께 최근 리미다 프라자호텔&씨원리조트가 문을 열면서 쉬어가기 좋은 관광 명소로 부상중이다.

자은도가 이번에는 클래식 향기를 전하는 공간으로 변신을 꾀한다. 신안군의 ‘피아노섬(Piano Is-

land) 프로젝트’를 통해서다. ‘1도 1뮤지엄’, ‘1섬 1테마정원’에 이은 또 다른 예술섬 프로젝트다. 군은 프랑스 북부의 작은 도시 르 투케 파리 플라주의 피아노 축제 ‘레 피아노 플리에(Les Pianos Foliés)’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내년 5월 자은도에서 ‘제1회 피아노의 섬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다. 2주간 진행될 축제에서는 국내외 정상급 피아니스트 초청공연이 펼쳐지며 성악과 가악, 실내악 등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공연이 어우러진다.

최근 국내에서는 클래식 붐이 일고 있다. 쇼팽 콩쿠르 우승자 조성진, 반클라이브 우승자 임윤찬 등 스타급 연주자들의 등장으로 클래식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데다, 공연과 함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클래식 축제들도 속속 열리고 있다. 강원도 평창군에서 개최되는 대관령국제음악제

는 휴양과 공연이 어우러진 대표적 축제로 자리를 잡았고, 작은 시골 동네 평창군 계촌마을에서 열리는 계촌클래식 축제에는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출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자은도에서 열리는 클래식 축제가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이번 페스티벌은 신안군 섬 문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산다이’와도 관련이 있다. 종합예술인 산다이에서 다루지는 음악은 포괄적이고, 섬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담겨있다. 또 클래식 공연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 지역의 청소년과 주민들에게 라이브 연주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현대문명의 불안... 인간에 대한 향수

지현 개인전, 12월18일까지 소암미술관

지현 작가 개인전이 오는 12월 18일까지 소암미술관(광주시 남구 중앙로 83-1)에서 열린다.

‘관계의 노스텔지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지현 작가는 현대인의 무분별한 소비와 향락 문화, 기후위기 등 현대문명의 불안함을 화려한 색채로 표현한 작품 16점을 선보인다.

지현 작가는 호화로운 파티를 즐기며 향락에 빠진 젊은 이들의 모습, 불특정 사교현장에서 오열하는 군중, 일상적인 풍경에 낯선 동물뼈를 표현하며 갈 곳을 잃은 현대문명이 풀어야 할 인간주의에 대한 향수(노스텔지아)를 그리고 있다.

전남대 서양화과 대학원에 재학중인 지현 작가는 미국 뉴욕 갤러리 ‘아트모리’ 레지던시, 중국 상하이 갤러리 ‘윤아르떼’ 레지던시, 전북도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등에 참여했다. 또 우진문화재단 청년작가, 아시아프 히든아티스트에 선정되기도 했다.

양동호 소암미술관 관장은 “지현 작가의 작품은 기술문명의 획일성 아래 정처없이 떠도는 현대인의 삶을 성찰해보고, 인간



‘Fall’

존재의 귀중함, 현재적 소망과 행복을 함께 생각해보는 전시”라고 말했다.

월요일 휴관. 관람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시각장애인 사진동호회 ‘상상클럽’ 회원전 25일까지 광주시청 1층

‘마음의 눈으로 찍은 사진을 만나다.’ 광주시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 사진동호회 ‘상상클럽’ 제8회 정기 회원전이 열린다. 25일까지 광주시청 1층 로비.

‘상상클럽’은 지난 2015년 창립했다.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사진을 찍을 수 있나”라는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 회원들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사진 촬영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현재 상상클럽 회장을 맡고 있는 중증시각장애인 송상훈 회원은 광주사진작가협회 정회원으로 임명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회원들은 이번 전시에서 ‘광주광역시 시각장애인들의 에이블 아트’를 주제로 한해동안 촬영한 작품을 선보인다. 참여작가는 시각장애인 회원 8명,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진작가 자원봉사자 6명 등 모두 14명으로 40여점의 풍경 사진 등을 전시한다.

전시에는 송상훈 회장을 비롯해 강동희·김민호·박선영·어재원·황민우(대한안마사협회 광주지부장)·박정준(상상클럽 초대회장)·김준(시각장애인복지관 직원) 회원 등이 참여해 ‘꽃길’, ‘담쟁이’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회원들은 코로나19 전에는 장수사진 찍어드리기, 안마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광주시 시각장애인연합회 최삼기 회장은 “장애인들이 ‘상상클럽’처럼 광주시각장애인연합회와 광주시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신감을 갖고 도전, 무엇을 상상하든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



송상훈 작 ‘말 달리기’

이정록 사진작가, 17~18일 작은도서관 강좌

사진을 매개로 한 인문학강좌가 열린다.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 작은도서관(빛고을아트스페이스2층) 이번주 인문학강좌는 이정록(사진) 사진작가가 강연자로 나선다. 강연 주제는 ‘사진, 보이지 않는 것을 담다’이며 오는 17일과 18일 오전 10시.

1971년 광주에서 태어나 이 작가는 로체스터 공대(R.I.T) 영상대학원에서 순수 사진을 전공했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근원적 세계를 신화적 감수성으로 표현하는 사진 작업을 하고 있다.

런던과 상해 등 국내외에서 36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광주비엔날레(2018), 무등설화(북경 금일미술관, 2012) 등의 국제적인 기획전에 초대됐다. 2006년에는 광



주신세계미술제 대상, 2015년에는 수필사진 문화상을 수상했다. 수강인원은 15명 내외이며 수강료는 무료.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17일까

지 선착순으로 방문접수(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338번길 7, 문화예술작은도서관) 또는 전화접수(062-670-7968)로 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